

ISG 서포터즈

ISG 대학생 서포터즈

팀프로젝트
Team Project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이 주최하고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이 주관하는 'ISG 서포터즈' 과정은 학기별 및 수시로 'ISG 서포터즈' 모집을 한다. 그들이 일구는 스포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프로젝트 소개 및 인터뷰

국제교류

2팀 캄보디아 국제교류
2팀 국제교류
14팀 MLB팀



14팀 조지원 팀장



2팀 최지호 팀장

팀원의 각자 특성에 맞게 MLB 관련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 MLB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미국의 야구 코칭 시스템이 담긴 글이나 영상을 번역하는 역할을 도맡아합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교류업무를 분배합니다. 이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혹은 외국 지회 설립이 될 수도 있으며, 그 방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INTERVIEW

2팀 최지호 팀장

Q.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어떤 식으로 국제 교류를 해 나갈 계획인가요?

A. 우선 2팀의 주 프로젝트인 '국제지회 설립'을 중점으로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국내 해외유학생, 교환학생 등 외국인 대상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지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각국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을 서로 멘토 멘티가 되주어 멘토링 하거나, 친선 경기, 또는 스포츠 이벤트를 하며 국제교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대한 ISG를 알리고, 또 외국인들에게 한국 스포츠에 대해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VIPP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중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미국의 MSU와 ISG의 연계 프로그램을 하여 학생들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요즘은 학교 수업, 학원 수업 등도 줌으로 하기 때문에 줌이 잘 시스템화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줌을 통한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MLB 분야는 현재로서는 국제지회에 더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Q. 14팀 MLB팀과의 협업활동이 따로 있었나요?

A. MLB 분야의 일은 기존 MLB 팀의 진행이 있고 난 후에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부수적인 일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여 아직까지는 협업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2팀 김우진 팀장

Q. 캄보디아야구연맹과 후원하는 2팀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캄보디아야구연맹 (CBF)과 우리 2팀은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팀원이 CBF 홍보이사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BF에게 전반적인 야구 기반시설 발전 등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Q. 많은 국가 중에서 왜 하필 캄보디아인가요?

A. 캄보디아는 본래 야구가 존재해오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적은 지원으로 인하여 야구 발전이 쉽지 않았습니다. CBF는 국제 대회 등도 주최하고 싶어하는 야망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제적인 관계를 시작하였고 현재 소통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야구에 더 큰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설이나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팀 조지원 팀장

Q. MLB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A. 저희 MLB 팀이 중점적으로 맡을 업무는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메이저리그 각 구단에 인턴 형태로 보내서 경력을 쌓게 하는거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한국 야구 입장에서 네트워킹이 확장되는 선순환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메이저리그와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Q. MLB 관련 블로그, '우리야구' 유튜브를 번역하시는 등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어쩌다 시작하게 되셨나요?

A. 평소에도 야구라는 종목과 메이저리그의 시스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야구에 대한 시각이 너무 편협해지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is Excellency Thavy NHEM, Senior Advisor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Kingdom of Cambodia (equivalence to the Minister Position) and President of the Cambodia Baseball Federation (CBF).

1. 캄보디아 야구연맹 회장을 맡게 된 계기와 야구 연맹 결성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Tell us about how you became the president of the CBF, and some background stories about formation of CBF.

Answer: I became a president by first being an acting president on behalf of Mr. Saroeun in the 3rd mandate (2011-2015), for I could speak English which is easily for communication with international baseballs and after the current president having serious health condition. When the 3rd mandate ended in 2015, I then got elected as a President for the 4th mandate (2015-2019) and I was re-elected in 2019 for the 5th mandate (2019-2023).

Up to 2021, Baseball presents in Cambodia for 19 years. Mr. Pok Joeurt (Joe Cook), a Cambodian American brought the game to Cambodia in 2002. To commemorate his effort in developing the game in this country, Cambodia Baseball Federation (CBF) scripted his name in CBF Statute's Chapter 5, article 17 by giving the founder status to him and provides his access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full rights to discuss things and provide comments/ suggestions over the key issues concerning to all CBF affairs and in sourcing for assistances in order to develop baseball in Cambodia in spirit, equipment/materials and cash.

The Cambodia Baseball Association led by Mr. Pok Joeurt was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in the Ministerial Letter No. 861 dated September 1, 2005. The association owned the first ever baseball field in Krang Khmer Village, Popel Commune, Baribo District, Kampong Chhnang Province. In 2007, with increasing member clubs the association was transformed to a federation, Khmer Baseball Federation (KBF). In 2011, KBF was under the leadership of Mr. Pin Saroeun and I was then a vice president. However, due to the health condi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Mr. Pin Saroeun had handed over the leadership role to me who was then also a member of parliament of Cambodia.

Under my leadership,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baseball activities in Cambodia to be more effective, the Executive Committee has undertaken many reforms that led to convene a meeting to change its members and the name of the federation. Therefore, the Khmer Baseball Federation was changed to the Cambodia Baseball Federation on January 15, 2017. The logo of CBF was also changed accordingly to be relevant to the new adopted Cambodian law that only allows for the use of the silhouette of Angkor for the logo of all non-state agencies in the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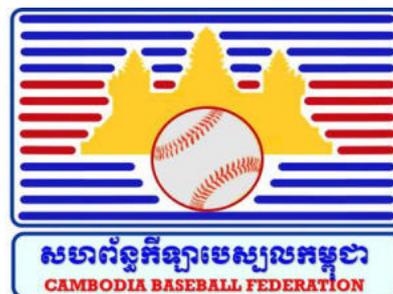
The changes of name and logo were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MoEYS) and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Cambodia (NOCC). In 2019, as the current Executive Committee of the 4th mandate come to an end, a general assembly was conducted to elect for the new Executive Committee for the 5th mandate (2019-2023).

According the official list of CBF in November 2019, there were 9 baseball clubs in Cambodia (5 in Phnom Penh, 1 in Kampong Thom, 1 in Banteay Meanchey, 1 in Kampong Speu and 1 in Sihanoukville). There were 233 regular players (37 women), 4 international umpires/coaches (1 women) and 15 national coaches (all men). However, those international and national coaches work for CBF only in a voluntarily basis.

To overcome its challenges in hosting international tournaments/competitions, CBF has an ambitious plan in constructing a baseball complex in Kampong Thom, a province sits in the center of Cambodia. CBF is looking for development partners/investors to make this project come true.



CBF Logo before 2017



New CBF Logo since 2017

저는 처음에 국제 야구와의 소통이 용이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현재 회장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Mr. Saroeun을 대신하여 3번째 임기 기간(2011-2015)에 권한대행으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3번째 임기가 끝났을 때, 저는 4번째 임기(2015-2019)를 위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저는 2019년에 5번째 임기(2019-2023)를 위한 회장으로 재선출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야구가 19년째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계 미국인인 Mr. Pok Joeurt (Joe Cook)가 2002년에 캄보디아에 야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야구를 발전시킨 그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캄보디아야구연맹(CBF)은 그에게 설립자의 권위를 줌으로써 CBF 법규의 제 5장 제 17조에 그의 이름을 작성하였고 총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에 대한 접근 권한과 CBF의 모든 일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의견/제안을 제공하는 권한을 제공하였으며 캄보디아 야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신, 도구/재료 그리고 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Mr. Pok Joeurt에 의해 이끌어진 캄보디아야구협회는 2005년 9월 1일자 장관 편지로 내무부에게 공인받았습니다. 협회는 Krang Khmer Village, Popel Commune, Baribo District, Kampong Chhnang 지방에 첫 번째의 야구 경기장을 소유했습니다. 2007년에, 클럽 멤버들의 증가로 협회는 Khmer Baseball Federation (KBF)라는 연맹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에, KBF는 Mr. Pin Saroeun의 리더십 산하에 있었고 저는 그 때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와 규정의 인가 때문에, Mr. Pin Saroeun는 그 때 또한 캄보디아 국회의 일원이었던 저에게 회장직을 넘겼습니다.

제 리더십 산하에 캄보디아에서 야구 활동들의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연맹의 이름과 구성원들을 바꾸기 위한 회의 소집으로 이어진 많은 개혁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5일에 Khmer야구연맹이 캄보디아야구연맹으로 바뀌었습니다. CBF의 로고도 또한 비국가 기관의 로고에서만 Angkor의 실루엣을 사용하도록 한 새로운 캄보디아 법률에 의거해 변경되었습니다.

이름과 로고의 변경은 교육청소년체육부(MoEYS), 그리고 캄보디아국가올림픽위원회(NOCC)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증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현재 집행위원회의 4번째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5번째 임기(2019-2023)를 위한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기 위해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CBF의 공식 목록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9개의 야구 구단들이 있었습니다(Phnom Penh에 5개, Kampong Thom에 1개, Banteay Meanchey에 1개, Kampong Speu에 1개 그리고 Sihanoukville에 1개). 233명의 정규 선수들(여성 37명), 4명의 국제 심판들/코치들(여성 1명) 그리고 15명의 국내 코치들(모두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코치들 그리고 국내 코치들 모두 CBF를 위해 오직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국제 토너먼트/대회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의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CBF는 캄보디아의 중앙에 위치한 지방인 Kampong Thom에 야구 단지를 만들 야망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BF는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파트너/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스포츠 아카데미

3팀 센터 지부 지회
13팀 스포츠아카데미
17팀 축구아카데미



13팀 김혜민 팀장

야구, 축구, 펜싱 등 각종 지회들을 포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이며, 지회 확장뿐만 아니라 KCDC발 대표팀을 선발해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등 수익창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7개의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 17개 지부의 확장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재 축구아카데미(FC)를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들과 컨택하며 KCDC 지회를 지속적으로 모집중이고, 강신우 회장님을 중심으로 확장해나갈 예정입니다.



3팀 김민 팀장



17팀 권성준 팀장

INTERVIEW

3팀 김민 팀장

Q. KCDC 스포츠의학동아리, 마케팅동아리 모집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A. 저희 팀은 스포츠마케팅, 의학보다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지회 모집 및 홍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팀과 협업하여 J스포츠야구아카데미, 올라운드 야구 아카데미 등 ISG 지회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나 사회인 팀, 말씀하신 스포츠 마케팅, 의학 등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지회 모집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17팀 권성준팀장

Q. 축구아카데미 강신우 회장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강신우 감독님은 저희 KCDC 축구 아카데미 지회에 회장님이십니다. 강신우 회장님의 간단한 커리어를 보면 1983년도에 대우 로얄즈를 입단하시고 그 후 은퇴를 하신 후 서울대학교 축구부 감독, 대한축구협회 기술국장, 2006. MBC ESPN 축구 해설위원을 하셨습니다. 강신우 감독님은 화려한 축구 커리어를 끝으로 ISG 축구 담당 부사장을 맡고 계시며 ISG 스포츠아카데미 지회 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저희 KCDC 스포츠아카데미 지회팀은 강신우 회장님을 필두로 축구아카데미 오픈 예정 및 호점 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Q. 축구아카데미의 혜택이 궁금해요

A. 저희 스포츠아카데미 지회팀에 들어오게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회에 가입된 아카데미 간의 교류,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축구단 친선 경기 및 컵 대회, 국외 유학 프로그램, 유소년스포츠지도자자격증 발급 및 자격 부여, 강신우 감독 레슨 및 특강, 매거진 구독, 축구 장비 스폰 및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 저희 축구 지회팀은 지회 내 소속된 축구 아카데미를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혜택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13팀 스포츠아카데미와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저희 팀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여 13팀 야구, 펜싱 지회팀과 함께하여 스포츠아카데미 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구팀 및 펜싱팀에게 배울 점이 많으므로 저희 축구 지회팀은 야구, 펜싱팀에게 많이 배울 것이며 또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입니다. 13팀 스포츠아카데미팀은 야구, 축구, 펜싱 종목의 지회를 각각 담당하여 관리할 것이며 홍보 및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협업할 것입니다. 이제는 축구, 펜싱, 야구 각 지회팀이 아닌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한 개의 팀으로 잘 융화되어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13팀 김혜민 팀장

Q. 스포츠야구아카데미와 올라운드 야구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13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아카데미는 모두 KCDC의 지회로 등록 되어 있는 아카데미들입니다. 현재 제이스포츠야구아카데미, 올라운드야구아카데미, 은호펜싱클럽이 소속되어 있으며, 저희 팀은 이 아카데미 지회들의 홍보와 마케팅을 서포트하는 일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 홍보게시글 등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스포츠아카데미 지회를 모집하는 일도 진행합니다. 현재 축구아카데미 모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Q. 여러 지회와의 컨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스포츠아카데미모집 홍보는 동이나 구단위로 나누어 아카데미 데이터를 파악하고, 홍보글을 배포하여 컨택을 주로 시도하고, KCDC 간부 분들이나 소속 스포츠아카데미 코치님들의 지인 소개를 통해 컨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KCDC 지회로 하나의 스포츠아카데미가 소속되게 되면 해당 아카데미의 대표님과 저와 따로 연락을 하면서 서포트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갑니다.

특강

15팀 스포츠스타 특강
16팀 박정근 특강



15, 16팀 정찬희 팀장

강의장소 파악 및 예약, 리더십 심리학 두 강좌의 강의록작성, 다양한 기관으로의 특강 요청 등 특강을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INTERVIEW

Q. 가장 기억에 남는 특강 또는 서포터즈 활동 내용은 어떻게 있나요?

A. 팀원이 혼자뿐이라 팀원이 많은 다른팀들에 비해 업무수행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100장 분량의 특강ppt 제작을 혼자서 잘 마쳐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Q. 특강자 섭외와 특강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A.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강자 섭외나 특강홍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강자 섭외는 주로 박정근 대표님께서 맡고 계신 상황이며 특강홍보는 팀에서 자체적으로 포스터 등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특강 프레젠테이션 제작 또는 홍보 시 ppt, 포스터 제작 시 팀이 따로 있으신가요?

A. 저는 사업자용으로 망고보드라는 디자인 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PPT제작에는 강점이 있어 크게 제작에 어려움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자격증

8팀 자격증



8팀 고건우 팀장

INTERVIEW

Q.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KCDC와 ISG에서 취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는 총 17가지입니다! 유소년인성코칭지도사, GX 휘트니스지도사, GX 실용댄스지도사, 스포츠마케팅전문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체육라인댄스지도사, 노인체육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사, 요가지도사, 실버레크레이션지도사, 스포츠와운동재활 및 트레이너, 축구기술자격증, 시니어리더코치, 캠퍼스인증코치, 진로학습코치, 커리어코치,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공으로는 스포츠 및 체육 관련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유아교육과, 노인복지학과, 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 글로벌창업학과, 물리치료학과등이 있어 과에 맞는 자격증을 다양하게 선택가능합니다!

Q.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먼저 자격증을 1개 취득시 KCDC 학생회원 혜택을 제공하여 사이트 회원가입 후 논문이나 매거진, 국제 학술지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증을 2개 취득시에 KCDC 정회원이 되어 학생회원 혜택을 포함해 논문이나 매거진, 국제 학술지를 온라인으로 발송하고 학술대회나 국제학술대회나 민간 및 국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자격(10명 이상) 모집을 직접한 학생에게는 KCDC 정회원 혜택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턴 채용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Q. 취득 절차가 많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A. KCDC와 ISG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의 큰 특징이 바로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학 교과 수업을 연계하여 B학점 이상자가 레포트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정식연수나 평가시험이 없습니다. 취득절차는 자격증발급교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에 제출하시고 대학교과 성적표를 그 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취득하시고자 하는 자격증과 수업명이 다르다면 KCDC에 문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 해당 자격증 관련 내용(수업에 연계된 핵심 내용)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레포트나 기존에 있는 수준 높은 관련 텍스트나 영상을 명확한 출처를 통해 제공하면 취득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간소화된 취득절차를 보았을 때 이 민간자격증은 정말 효율적이고 빠르게 스펙에 도움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상담

10팀 심리상담



10팀 부이슬 팀장

가상의 선수를 설정해 상담해보는 방식으로 상담지 제작 및 전략 구상을 진행합니다. 조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주 디벨롭을 실시할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INTERVIEW

Q. 스포츠 선수들의 심리상담 필요성이 궁금해요

A. 선수들은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한 순간에 승패가 갈립니다. 뛰어난 운동능력도 중요하지만 강한 멘탈도 필요합니다. 스포츠 심리상담은 바로 선수의 정신력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선수의 루틴, 트라우마,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들여다보며 선수 자체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어 선수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수 있게 끌어줍니다.

Q. 선수들이 가장 많이 불안정해하는 심리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A. (부상) 트라우마 및 후유증, 선수로서의 압박감 및 자신감 문제, 코치 및 감독의 질책과 기합 등으로부터 오는 소극적인 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Q.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추천하나요?

A. 경기 수행에 있어 지장이 가는 문제점을 가진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작게는 사소한 고민부터, 크게는 선수로서의 성장가능성 우려, 트라우마 등을 가진 사람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홍보

11팀 홍보



11팀 박용재 팀장

ISG+KCDC 홍보뿐만 아니라 자격증, SNS, 지회, 논문 등 홍보가 필요한 서포터즈 팀들의 프로젝트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INTERVIEW

Q. 홍보팀이 ISG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홍보팀은 현재 ISG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ISG 서포터즈 내의 다양한 팀들의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카드뉴스, 영상, 글 등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Q. 홍보팀 3기의 총괄적인 목표가 따로 있다면?

A. 이번 서포터즈 3기 홍보팀의 가장 큰

목표는 ISG SNS의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운영중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다 많은 콘텐츠 게시를 통해 활성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새로 생성하여 더욱 많은 분들에게 ISG에 대해 효율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홍보팀에서 최근에 이룬 성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홍보팀의 성과물은 ISG의 발자취를 대표합니다. 민간자격증, 스포츠 지회, 스포

츠 바우처 등 ISG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해 온 콘텐츠 등이 홍보팀의 대표적 성과물입니다.

창업

18팀 창업



18팀 정찬희 팀장

INTERVIEW

Q. 창업 부서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창업을 구체화 시키고 다양한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Q. 현재 진행중인 창업아이템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아이템은 스포츠대회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입니다. 일반인들이 좀더 쉽고 간편하게 스포츠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Q. 그렇다면 스포츠 대회 기반의 창업아이템의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기융합콘텐츠 창업지원이라는 창업지원 사업에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내년 초에 진행되는 K스타트업의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지원사업이나 공모전을 통해 역량강화와 창업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Q. ISG 서포터즈 활동에서의 장점은 무엇 이 있나요?

A. 좀 더 부담없이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커넥션을 쌓아 나갈 수 있고 자격증 등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ISG서포터즈 지원 계기와 적 합하게 여러 가지 현장경력과 실습을 통해 역량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져서 서포터즈 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활동에 있어서 어려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아무래도 창업활동이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서포터즈 활동 중에 에피소드 또는 기억에 남는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원래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 찰게 경기융합콘텐츠 창업지원이라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박정근대표님께 공동창업 제안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창업을 진행하게된 시작 시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내년중순까지는 현재 진행중인 창업아이템을 실현시키고, KCDC & ISG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타

(6팀, 7팀, 9팀, 12팀,
19팀, 21팀)

6팀 코칭능력개발지 논문

연 4회 발간(3.6.9.12월)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에 대학 교수들에게 투고 부탁 메일을 작성한다. 현 코칭 융합(경영, 교육, 문화, 복지, 리더십, 융합 등) 관련 코칭 논문들도 많이 투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연구재단도 체육예술이 융합분야에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등재지 유지(논문편수, 년 몇 번 발행하는가 등)에도 도움이 된다.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논문투고를 늘리고, 논문발간은 올해부터 온라인 발간으로 한다.

7팀 IJCS

KCDC에서 발간하는 공식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IJCS)는 발간 배경과 역사, 현재까지 발간한 논문 주제 및 게재수 등을 소개하는 국제 학술지이다. 2007년 1월을 시작으로 연 2회(1월, 7월) 발간하고 있는 1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9팀 매거진

COACH-LEADER 단행본을 3, 6, 9, 12월 3개월 단위로 발행하고 있다. 단행본의 전체적인 주제는 대표님께서 선정 후, 팀원들과 자료조사, 인터뷰, 편집,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진다. 2021 9월 단행본의 내용으로는 ISG서포터즈 활동을 비롯하여 ISG, KCDC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내용이고 누리미디어에서 챗터별로 판매 중이다.

12팀 국가프로젝트

체육 관련 기관이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을 검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현재 관심있게 공모 사업 현황을 확인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코이카(KOICA)' 등이 있다. 팀원들이 각각 2~3개의 기관을 담당하여 각자 맡은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 팀 회의 시간에 13개 기관의 공모 사업 현황을 공유한다.

이후에는 소식 공유, 지원 여부 등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시 대표님께 결재를 받고 서류 작성 및 준비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3월, 국가프로젝트 팀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2021년도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준비했었다. 6월 말부터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2021년도 학술지 지원사업'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

19팀 영어프리토킹

매주 1시간씩 체육전공자들이 비대면으로 모여 영어회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 운영중이다. 참가비용은 월 2만원이며 KCDC정회원 혜택, 추후 강사로 채용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미국에서 스포츠심리학 박사를 하신 경인 교대 유생열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해주시는 것과 체육전공 사람들과 함께 영어회화 연습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어프리토킹 홍보는 홍보지 제작 후 스포츠잡알리오 카페, 동문 지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21팀 홈페이지

기존에 사용했던 홈페이지(ISG, KCDC) 서버 관리 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새로 제작중에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개설될 ISG, KCDC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SNS와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SG 홈페이지를 10월에, KCDC 홈페이지를 12월에 구축할 예정이고 오픈 전에 서포터즈 전원에게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새로 개설되는 KCDC + ISG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ISG 서포터즈

ISG 대학생 서포터즈

핵심업무
Main Task

ISG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여러 파트로 나뉘져 각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서포터즈들의 주된 업무에는 무엇이있을까 ?

지회 아카데미 회장 소개

임호균(야구아카데미 회장)

소속 : KCDC 야구아카데미 지회 회장
학력: 동아대 체육대학 체육학과(학사), 미국 세인트토머스대학 스포츠마케팅(석사)
경력: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 외래교수, 전 프로야구선수(삼미 슈퍼스타즈, 롯데 자이언츠, 청보 핀토스-태평양 돌핀스),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투수코치, NC 다이노스 2군 투수 인스트럭터, 성남 블루팬더스 감독, 스포츠투아이 야구학교 감독,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최고 방어율상 0(최우수투수상), 최소투구완봉승(73개 투구수), 백마훈장

현재 KCDC 야구아카데미 전국 지회를 모집 중에 있으며, 야구에 관련한 내용으로 대학.기업.관공서 등에서 특강을 진행중에 있다.

주민재(야구아카데미 J스포츠지회 회장)

호서대 야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출신으로 2015년 SK 와이번스입단하여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J스포츠에서 타격 코치를 맡고 있다. 훈련 시스템은 1:1로 등급별로 나눠 수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모션 캡처 등의 장비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이외에 J스포츠는 조민석(트레이닝 코치), 이진석(주루,타격 코치), 남경호(투수코치), 이루호 코치, 나세원(유소년감독)으로 구성되어 J스포츠구단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J스포츠출신 프로선수는 오태양(2021년 2차 5라운드, NC), 김재중(2021년 2차 9라운드 NC) 또한 현재 같이 공부하며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코치진을 섭외 중에 있다.

김정택(야구아카데미 올그라운드 아카데미 지회 회장)

LG 트윈스 투수 출신이자 일본 유학을 통해 일본독립야구를 경험하고 강남중학교 코치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야구의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 구단에 버금가는 케어로 수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재활, 퍼포먼스트레이닝 필라테스 센터와 협업함으로써 부상 방지와 신체 컨디션 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다.

강신우(축구아카데미회장)

대구 로얄즈 선수, 제 13회 멕시코 월드컵 국가대표 등의 선수생활 경험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축구팀 감독,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코치 등의 지도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조선 축구논설위원, 대한축구협회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기술위원 SBS 축구해설위원 등 축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현

재에도 해설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ISG축구담당 부사장으로서 KCDC 축구아카데미 전국 지회 모집, 선수 지도, 축구에 관련 내용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렬(펜싱 아카데미 은호펜싱클럽지회 회장)

펜싱 국가대표 EPEE팀 코치, 대만 국가대표팀 감독, 고려대 펜싱부 지도, 프랑스학교 펜싱프로그램 지도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선수로서 우수한 성적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도 유능한 선수를 배출하였다.

현재 은호펜싱클럽 지회를 운영하며 엘리트 선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도중에 있다. 은호펜싱클럽은 초등반/청소년반/성인반/엘리트반/해외유학반으로 분반되어 수업을 진행중이다.

유생열(영어프리토키지회 회장)

소속 : 경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
학력 :미국 Springfield College 운동심리학전공(체육학박사)

경력 :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총무이사, 한국체육교육학회 부회장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에 KCDC에서는 영어능력을 기르고자 '주제가 있는 Free talking'이라는 클럽을 만들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SKYPE(또는 ZOOM)을 이용하여 매주 채

박정근(스포츠심리상담센터 회장, 지도자 연수원 회장)

소속 :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대표

학력 : 고려대 사범대 체육교육과(학사), 미시간주립대 체육행정학(석사), 미시간주립대 스포츠심리학(박사)

경력 : 호서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스포츠과

학부 학부장, 코칭능력개발대학원장,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학과 및 야구학과 주임교수, 문체부 지정 호서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원장, 독립야구단 ISG(연천)미라클구단주, (사)KBO 야구발전위원회 위원,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스포츠심리상담사,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실무위원회 추진기획단장, (사)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추진단 자문위원,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선수 및 팀 심리특강 및 상담 다수)

역할 1. 리더십 및 심리 대학.기업.관공서 특강(민간자격증 발급), 2. 선수개인 및 팀 심리 상담(경기력 향상), 3. 진로상담(서포터즈/객원마케터/인턴을 통한 일자리 제공, 해외유학 및 해외일자리 제공), 4. KCDC 지회 설립(기존 스포츠사업체 및 기관 KCDC 지회로 가입해서 공동사업) 상담, 5. KCDC와 공동사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 상담

현재는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대표로 소속되어 있다. 호서대학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원장, 독립야구단 ISG(연천) 미라클구단주, KBO 야구발전위원회 위원, 한화이글스 스포츠심리상담사 등 스포츠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스포츠와운동심리학, 응용코칭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 여러 도서를 발간한 이력이 있다.

현재 리더십 및 심리를 주제로 대학.기업.관공서 등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개인 및 팀 심리상담, 서포터즈, 객원마케터 등을 위해 진로상담도 실시중에 있다. 또한, KCDC 지회를 설립, 상담, 관리하고 있다.

김종남(호서대학교 야구학과 지회 회장)

이두철(호서대학교 축구학과 지회 회장)

백동기(통증재활교육센터 : 인체미학 6차 원균형 회장)

기타 9개 미설립센터 16개 미설립 지부가 있으며 다양한 지회 회장을 섭외중에 있다.

ISG 서포터즈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연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배웠는지, 그 소감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볼까?

2팀, 14팀 김우진

저는 전 MLB 인턴 팀 조장이자 현 국제교류 팀 조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ISG에서 대외활동을 한 지 벌써 시간이 63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MLB 인턴 팀의 조장이 되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야구,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학교 야구 대표팀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더욱 애착이 갔던 조라고 생각합니다. MLB 인턴 프로젝트는 ISG와 KCDC에서 MLB의 각 팀들에게 인턴을 보내는 박정근 교수님이 추진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에 많은 학생들이 야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MLB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 문화 시장에서 좋은 경험과 발전을 할 수 있길 원하시기에 이 프로젝트를 만드셨습니다. MLB 인턴 프로젝트는 기본 6개월에서 1년동안의 인턴 기간을 가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MLB 전체 30 구단들의 인사과에게 이메일을 써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MLB 인턴 프로젝트는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혹은 성사되기 힘든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해본 후 이렇하게 느낀 이유는 일단 코로나가 겹쳐 있고, 아무래도 현지에 우리 팀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빠르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 팀들이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MLB 팀은 코로나가 나아지고 직접 보고 소통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연락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턴십은 수당이 없는 인턴십이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발전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연락이 온 팀도 있지만, 후에 연락이 너무 늦어서 발전이 되지 않아 프로젝트를 중단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는 간략하게 말해 캄보디아에 야구 지도자 파견과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꼭 성사할 수 있도록 대표님,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팀, 14팀 박희서

ISG 서포터즈로서의 활동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처음엔 그저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야구 구단에서 일하는게 꿈이고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메이저 리그 관련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순탄하게 상황들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업무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많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었다. 우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많은 제약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아쉬웠다. 그리고 외국과 컨택을 해야하는데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연결 고리도 부족하고 정보 업데이트 현황도 잘 몰라서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 점이 매우 아쉬웠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 야구 관련 번역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해외 체류 경험이 없어서 번역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고 캄보디아의 야구 현황에 대해서도, 캄보디아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는데 활동을 통해 알게 되면서 야구가 앞으로 많은 나라에서 성행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야구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야구의 보급이 보편화 되어야 하고 자본적인 지원과 여러 국가 간의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5조의 활동으로는 스포츠 심리에 관련된 PPT를 제작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되었다. 사실 스포츠 심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실제 이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PPT를 정리하면서 스포츠 심리학이 생각보다 선수들에게 멘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포츠 심리학이 더욱 발전되어 많은 선수들을 정신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택으로 근무하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재택으로 근무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4팀 윤민영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ISG + KCDC 대외활동은 아주 매력적인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포츠산업학과에서 학습한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 적용하여 보고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동기를 얻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직접 부딪히며 성장해왔으며, 그 도전을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서포터즈'를 통해 다시금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 대표님과 전화통화를 하며 말씀해주신 코이카 프로젝트에 큰 흥미를 느끼었으며,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대로 다가왔습니다. 직접 코이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니즈를 파악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서를 찾아보며 캄보디아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직접 만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더욱 큰 흥미를 느끼었습니다. 아쉽게도 ISG의 체육교육봉사 프로젝트가 코이카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활동을 통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문서 작성 능력과 다양한 정보를 찾고 선별해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팀원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도전하며, 큰 보람과 흥미를 느끼었으며 꼭 후에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유학 프로젝트의 경우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유학 추진이 어려워지며, 본래 프로젝트 방향성이 잡히지 않아 팀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추후 초등학교를 한정으로 펜싱, 야구 스포츠캠프를 기획하였지만, 코로나 및 홍보 루트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모집에 실패하였습니다. 팀원들 나름대로 당근마켓, 학부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모색했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 효과를 끼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

끼었습니다. 비록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지는 못했지만, 매주 회의를 통해 팀원들과 홍보전략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홍보 방법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ISG 서포터즈 활동은 보람과 아쉬움이 동시에 들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팀원들과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흥미를 느끼었지만, 아무래도 모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까지 자율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많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돌아보며 어렵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4팀 김혜린

3월부터 시작한 ISG 서포터즈 활동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모든 활동들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선수들의 한국 내 축구부활동은 미팅 후,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였으며, 조를 옮긴 10조의 스포츠 심리 또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몇 주 간의 활동 끝에 4조 활동에만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4조의 스포츠 캠프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끝내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고 싶어 신청하였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하여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 홍보를 하기 위해 팀원과의 회의 또한 좋은 추억이었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디어 도출해보고 컨택도 해가며 많은 조언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ISG와 KCDC가 더욱 홍보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해가며 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되면 좋겠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 서포터즈를 시작할 때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지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에 임하다 보니 생각보다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활동까지 팀원들을 신경써준 저희 조장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8팀 고건우

먼저 ISG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서포터즈라는 하나의 스펙이나 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중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생긴 저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경영지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싶었고 이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찾아보던 중 ISG 서포터즈에 지원했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첫 회의를 거쳐 홍보업무와 파견업무 총 2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많은 조원들과 조장님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스포츠라는 산업과 하나의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록 1조에서 담당했던 캄보디아 파견 업무가 실패를 하게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노력해준 팀장님과 대표님 또 1조의 조원들의 헌신은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었고 곧 다른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윤택유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 1조가 분리되면서 얼떨결에 민간자격증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게 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조원들의 지원과 또 다양한 분들의 격려덕분에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6개월만 진행하고 끝을 낼 생각이었지만 ISG에서 바라보는 비전이나 프로젝트에 잘 맞다는 생각과 대표님의 설득이나 조언으로 1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팀장직에 걸맞지 않은 사람인데도 믿어주신 대표님과 곧 나가지만 그동안 수고했던 장연우 팀원, 서진희 팀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하윤상 팀원과 앞으로 같이 해나갈 김문정 팀원까지 모두 수고했고 열심히 하였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지금의 이 서포터즈의 기회는 소중한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의 기회와 후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더 노력하고 끝까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9팀 김승래

초등학교 때부터 베스트일레븐 또는 포포투라는 축구 잡지를 구독해서 매달 볼 정도로 스포츠와 관련된 단행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오티 때 단행본 조가 있어서 이곳에 들어가서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업무를 시작할 때는 다른 조원분들도 처음이다 보니 시작이 약간 어수선하고 방향성을 잘 못 잡았던 거 같다. 제일 먼저 단행본 표지 틀을 잡으면서 진행의 시작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다. 표지 틀을 아이패드 펜슬로 한 번 그려서 만들었고 다른 조원들 표지도 다 합해서 투표를 통해 정했다. 이후에는 자료 조사와 인물 인터뷰였다. CBF와 CBA는 자료를 구글링으로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 SNS 페이스북을 일일이 찾아서 사진 자료를 건질 수 있었다. 인터뷰는 할 분들이 은근히 많았다. 그래서 인터뷰 전에 직접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원끼리 통합을 했고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나는 허구연 해설위원님을 직접 조원 한 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집과의 거리가 꽤나 멀었지만 좋은 기회이고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이어서 자원해서 갔다. 야구 보시거나 하신 분은 모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내 즐거웠고 초보인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대표님, 전길자 회장님, 권오병 지부회장님, 서포터즈 조장님들 등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 하면서 마치 기자 역할을 하는 느낌이어서 재밌게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자료조사도 꾸준히 하면서 인터뷰 업무가 마칠 때 쯤 통합하는 일만 남았다. 자료, 사진, 인터뷰 내용 등 여태까지 활동해 왔던 모든 것들을 단행본에 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양이 워낙 방대해서 줄이고 편집할 필요가 있었다. 제일 먼저 목차를 토대로 내용들을 편집하고 사진 자료도 첨부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최종 단행본이 나와 버렸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수정작업을 거쳐 수정본1, 수정본2, 수정본3....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고 결국은 7월 초에 최종 단행본이 출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뿌듯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왔다. 3월 달부터 조

원들끼리 서로 힘내서 단행본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엄청 만족했었다. 초반만 하더라도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만들었고 기한 안에도 들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2월 서포터즈 지원을 신청했고 3월에 서포터즈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학교와 병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현재 8월 말 여름도 지나 가을 새로운 학기를 기다리는 나로서는 의미 있는 6개월 간 시간을 보냈다고 기억에 남을 거 같다. 비록 1년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6개월 동안의 시간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9조 조장님과 조원들과 3월 달부터 동행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9팀 이지희

저의 전공은 광고홍보학과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배구란 운동에 빠져 저의 전공을 살려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진로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마침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서포터즈를 발견하게 되었고 면접을 통해 ISG 서포터즈 1기에 발탁 되었습니다. 처음 대표님과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관심있는 활동 업무들을 고민해보다가 단행본 제작이라는 업무가 전공을 잘 살려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단행본 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단행본 팀의 리더를 하려고 한 적이 없으나 반강제적으로 조장이 되어 처음에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넘치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에서나 어느 소속에 있던지 앞장 서 이끌어 본 경험이 없어 초기 한 두 달 정도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자신감이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을 이끌어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입장이 되니 가만히 있어서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지시 받는 입장에서 지시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리더로서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업무에 책임과 끝마무리는 모두 리더의 몫으로 돌아오며 남들보다 20%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화한 점은 책임과 용기였습니다.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은 6개월동안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데 있어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게 했으며 단행본팀의 업무 또한 많은 분들에게 요청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서슴없이 누군가에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단행본팀에서 저를 포함해 대다수가 단행본 제작이 처음인지라 사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수준으로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제와 관련한 자료 내용들이 전부 처음 보고 들은 내용이었기에 저희 단행본팀도 관련 파일이나 자료들을 이해 파악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6월호에서 다루는 캄보디아 스포츠 사업이나 CBF 관련 주제들을 처음 접했을 때 조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저조차 어떤 내

용인지 몰라 사경을 많이 헤맸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아마 매번 맨 땅에 헤딩하듯 낯선 주제를 받아들이고 다듬는 게 단행본팀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행본팀의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ISG 서포터즈, KCDC의 활동 업무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담당하는 업무들이 다 다르지만 단행본팀은 단행본을 제작하는 데 있어 많은 부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COACH-LEADER 매거진은 곧 ISG, KCDC의 활동을 전달하는 소식통과 같기에 ISG와 KCDC에 관해 얕지만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호를 만드는 3개월 동안 팀원들과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서야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자리를 잡은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서포터즈 1기 단행본 팀의 활동은 8월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COACH-LEADER 매거진의 역사는 계속해서 후기 서포터즈분들이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많은 경험을 가져다 준 ISG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1기, 2기 서포터즈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1팀 김수연

처음 ISG 서포터즈에 합격을 하였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대외활동이었고 좋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합격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서포터즈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을 때 서포터즈 인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다 같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자 다짐을 하였습니니다. 그래서 조장의 지원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지원을 하였고 저는 홍보팀 조장이 되었습니다.

홍보팀은 다른 조보다 인원이 많았고 처음에는 벅찼습니다. 팀장님께 연락하여 여러 조언을 듣기도 하였고 열심히 이끌고 업무를 분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팀원이 탈퇴하기 시작하자 제가 감당할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였던 홍보를 하는 방식이 아닌 ISG 시스템에 적응하는 기간도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홍보팀 내에 체계를 몇 번 바꾸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원했던 홍보를 하고자 하였고 뒤늦게 기업 홍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팀에서 다른 팀에게 홍보를 의뢰받고 그에 맞추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홍보 대행과 같은 느낌이었지만 기업을 조사하고 대중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니 제작 속도도 빠르고 팀원들의 할 일을 각자 잘 찾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습니다. 기업 홍보 외의 홍보물 제작은 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고 다른 팀 업무와 홍보팀 업무를 병행하는 상황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홍보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시험 기간으로 인해 참석 인원이 매우 저조했고 회의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깨지기 전에 조금의 틀이라도 잡아두었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성과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보팀은 소통이 중요하지만, 항상 하는 사람만 정보를 주고받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의 서포터즈 모집 때 방식을 조금 바꾸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어떨까 싶어 의견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못 건디는 사람은 탈퇴하는 방식이 아닌, 대외활동이 간절하고 열심히 참여할 것 같은 사람만을 뽑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서포터즈 인원이 많으니 서포터즈 관리가 잘 안되는 것도 사실이었고 업무는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인원에서 대외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서포터즈 관리는 물론 업무 관리도 조금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팀이 많아 서포터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그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 별로 팀을 나누는 것이 아닌 스포츠 마케팅으로써 경험하면 좋을 업무를 같이 분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를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보하고자 대상을 찾고 홍보물이 상위노출이 될 수 있도록 검색어를 찾아내며 대상 마케팅을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 홍보물을 수정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 사회에 나가서 비슷한 업무를 진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86시간 동안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셨기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포터즈가 함께 움직여 제작하고 홍보하여 정성어린 홍보물은 좋은 결과가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포터즈 2기, 3기, 4기도 관리가 가능한 최대의 인원으로 함께 움직이며 좋은 성과물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1기 서포터즈의 끝으로 멀리서 많이 응원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12팀 이야기

스포츠학과 관련 없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 ISG 서포터즈 1기에 지원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조장을 맡게 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여기에 '국가 프로젝트'라는 말이 주는 부담감도 상당했습니다. 서포터즈 업무 시작 시기가 '스포츠 산업 분야 인턴 지원 사업' 등이 마감된 후였기 때문에, 대신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사업과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황이라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일만 생기던 차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 학술대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였고, 대표님과 조원들과 함께 지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조원들 모두 처음 하는 국가사업이라 어려움이 많았고, 밤을 새워 자료를 입력하는 날의 연속이었지만 ISG와 KCDC의 발자취가 담긴 단행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용을 보완했고, 대표님과 유생열 교수님의 피드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술대회 진행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각 조 조장들에게 업무에 대해 묻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일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조장들의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대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학술대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참여자 전문가로 한정되지 않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이 되어가는 ISG 서포터즈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현재 국가프로젝트 팀은 '2021년도 학술지 지원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학술대회 지원사업 피드백과 관련 서류를 참고하며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ISG 서포터즈로서, 또 12조 조장으로서 맡는 마지막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꼭 선정되길 바랍니다. 지난 학술대회 지원사업 피드백과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중인데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준비하겠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부족한 저를 믿어주신 우리 12조 조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ISG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스포츠 전문가에,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조장 대표는 말 그대로 어찌다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걸 선호하는데, 50명이 넘는 서포터즈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찾다보니 회의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참석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했는데, 어느 순간 조장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서포터즈 분들의 동의 없이 한 순간에 조장 대표가 되어 죄송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남다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장 대표는 이름만 대표일 뿐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장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포터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 여러 서포터즈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한 결과, '소통 창구'가 되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표님과 서포터즈, 그리고 서포터즈 간에 원만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ISG 익명서서함'을 운영하고 조장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전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대부분의 서포터즈가 실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을 텐데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제 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서포터즈 분들과 많이 이야기 나눠보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인사 해주신 서포터즈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ISG 서포터즈를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 실무를 포함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도 있고, 업무가 집중되어 힘들었던 적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의미 있는 6개월을 보낸 1기 서포터즈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팀 권성준

군대를 가기 전에는 군대라는 장애물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군대를 가야 하니 군대를 다녀와서 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 후 막상 사회에 나가려니 두려웠습니다.

군대에선 나의 일과가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사회에선 그 누구도 저의 일과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 내가 무엇을 잘하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운동선수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체대입시까지 준비했었고 또 운동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스포츠 마케터라는 꿈이 생겼으며 스포츠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고민 끝에 ISG 대학생 서포터즈를 접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ISG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ISG 서포터즈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맡았습니다. 먼저 중국 축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ISG 캄보디아 프로젝트, 심리상담, 스포츠 아카데미 지회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중국 축구 프로젝트는 중국인 및 아시아 선수들을 한국 대학으로 입학할 시켜 입학한 선수들을 한국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케어해주어 선수들이 엘리트로 육성되기를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캄보디아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에 스포츠봉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캄보디아에 한국 봉사자들이 캄보디아로 가서 스포츠 문화를 키워주는 프로젝트 입니다. 심리상담 프로젝트는 심리상담팀이 심리상담전략 및 심리상담기술을 배우며 박정근 원장님의 심리 상담을 유소년, 선수, 지도자, 체대 입시생, 입시생, 일반인, 동호회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스포츠 아카데미 지회팀은 스포츠 지회를 모집하여 지회에 가입된 팀을 관리 및 홍보를 해주어 ISG 아카데미 지회팀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ISG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포스터 제작, 홍보글 제작, 축구 센터 방문, 축구 전 국가대표 선수 만남, 축구 유소년 클럽, 유소년 야구 클럽, 배드민턴 유소년 클럽 컨택, 홍보, 심리상담전략, 심리상담방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ISG 서포터즈에서 수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리상담전략을 공부를 많이 하였고 그 전략을 가지고 가상의 선수를 만들어 내가 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가상의 선수에게 상담전략을 알맞게 방안제시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ISG 서포터즈에서 수행을 잘한것이 있으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서포터즈들이 마찬가지로겠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하다 보니 프로젝트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제대로 수행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ISG 대학생 서포터즈는 좋은 서포터즈 활동으로 스포츠 분야로 취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ISG서포터즈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제한 및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나서 대면으로 했을 때 즐거움과 사교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쉽고 ISG 대학생 서포터즈는 다양한 프로젝트 및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약간 체계가 안잡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개수를 조금만 줄여서 모두가 함께하여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ISG 대학생 서포터즈는 약간 일을 한다는 생각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는 다양하게 배우고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서포터즈 학생들은 본업도 있고 일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ISG 대학생 서포터즈를 6개월간 진행해본 소감문을 마칩니다.

13팀 김혜민

대학교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깊고, 더 많아졌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만연했지만, 좋아하는 것이라고는 유일무이하게 스포츠관람 뿐이었습니다. 스포츠 관련직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떤일을 하면 잘 맞을지, 어떤 일이 재미있는지, 또 스포츠 관련 업종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마케팅을 배우고 있었기에 그나마 들어본 것이라고는 '스포츠 마케팅'. 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함을 느끼던 무렵, ISG 서포터즈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물론, 국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포츠 실무 체험이 가능해 보여, 진로를 더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고 13팀 야구아카데미 지원 팀장으로 서포터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엔 많은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한번도 해보지 않는 실무 경험, 그리고 팀장이라는 중압감까지 더해져 빠르게 갈피를 잡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차차 업무에 익숙해져 가면서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고, 같은 진로계획을 가진 팀원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힘들보다 재미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재미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스포츠 종목, 특히 야구와 배구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점차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회인 스포츠, 고등학교 엘리트 스포츠 산업에 대해 관심 갖게 되었으며 매니지먼트 사업, 스포츠전략 분석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SG서포터즈 활동은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에서 준직장인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고, 진로를 확정 짓게된 계기가 되었으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크기를 넓혀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싶습니다.

16팀 정찬희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고 관심있어 했기 때문에 이 서포터즈를 지원했습니다. 우연히 지원했던 ISG+KCDC서포터즈가 마침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이었고 더 수월하게 서포터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드뉴스나 PPT등 제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고 다양한 관련자료들을 만들어나가며 더욱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부터는 스포츠관련 이벤트 플랫폼인 "세모츠"라는 창업 활동을 ISG+KCDC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도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었기에 홍보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를 통해 실제 스포츠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관련업무에 대해 더욱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ISG+KCDC와 함께 세모츠라는 창업활동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